

'99년 낙농산업을 결산한다

20 세기를 마감하는 해이며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1999년도는 그 어느해보다 감회가 깊을 수 밖에 없다. 1886년에 젖소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1900년대는 이땅에서 낙농업이 정착된 것이다.

1999년은 유래없는 IMF 구제금융조치라는 암울했던 한 해를 극복하고 낙농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

우유의 급속한 수요감소로 1998년 6월에 분유재고량이 1만 6천 톤까지 육박하면서 낙농산업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금년 들어 경기회복과 자조금제도 등을 통한 우유소비 확대 노력으로 분유재고도 금년 9월말 현재 적정 재고량에도 못미치는 3,000여톤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우유 성수기인 9월에는 유업체 간 원유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재연되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또한 사상유례없이 상승하였던 사료가격도 하락하고, 수직 하락하였던 소 값도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낙농산업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낙농사에 일대 전기가 될 집유일원화 사업과 검사공영화의 실시는 새로운 천년대에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이라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이 정 호
서울우유 상무

1. 낙농가수 및 젖소사육두수 현황

낙농가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제품수입개방, 분노처리 문제, 노동력부족, 후계자부재, 지가상승, 도시근교지역의 산업화로 경쟁력을 잃은 영세 낙농가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낙농가수는 최근 5년간('95~'99) 연평균 10.9%가 감소하였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율이 둔화되어 금년에는 전년대비 5.2%가 감소하여 최근 5년동안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50두 이상의 낙농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목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육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9% 감소하고 있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0.8%~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 낙농가수 및 젖소 사육두수 추이

(단위: 호, 두, %)

연도	'95	'96	'97	'98	'99.3/4	연평균증감율	
낙농가수	낙농가	23,519	21,129	17,419	15,671	14,855	
	증감분	△2,148	△2,390	△3,710	△1,748	△816	△ 10.9%
	전년대비	△8.4	△10.2	△17.6	△10.0	△5.2	
사육두수	사육두수	553,467	551,493	544,417	538,913	534,668	
	증감분	1,328	△1,974	△7,076	△5,503	△4,245	△ 0.9%
	전년대비	0.2	△0.4	△1.3	△1.0	△0.8	

IMF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2세 이상의 암소는 작년 연말부터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젖소 도축두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감소추세를 보이던 인공수정 실적도 금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 우유수급현황

1999년 국내 원유 총생산량은 작년의 2,027천톤 보다 3% 내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유소비량은 작년의 2,298천톤 보다 13%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생산의 경우 금년에 사육두수 감소, 하절기 고온과 홍수 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낙농여건이 호전되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체세포 3등급 별착금이 종전 60원에서 30원으로 조정되면서 내년도에는 도태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생산량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유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IMF 이전 상태로 우유소비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소비감소로 인해 금년 4월말 전지, 탈지분유의 재고량이 9,300여톤에 달해 우유과동의 조짐이 보였으나 경제회복과 함께 우유소비가 급격히 신장되면서 9월 현재 3,000여톤으로 줄어들어 작년 같은 기간(12,509톤)에 비해 70%나 감소하였다.

이는 빠른 경기회복과 단체급식 시장의 확대, 자조금 제도 도입 등의 원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9월 성수기에는 각 유업체별 원유가 부족하여 유업체간 원유쟁탈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금년에는 우유의 수급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5월에 모조분유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WTO(세계 무역기구) 폐널로부터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WTO에 상소를 하였으나 이것이 기각되면 곧바로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모조분유의 수입이 급증하여 경쟁력이 적은 국내산 전지 및 탈

지 분유의 재고 증가로 국내 낙농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집유일원화 사업 및 검사 공영화 실시

1967년 제정된 낙농진흥법은 1997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기본정신은 농림부에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집유일원화, 원유와 유제품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낙농진흥회가 1999년 1월 7일 설립되어 낙농산업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유가공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낙농진흥회는 개정법의 주요 핵심사업인 집유일원화의 연내 조기 실시를 위하여 각 도별로 9개 집유권역을 설정하고, 불참의사를 표시한 충남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1개 집유권역별 2개의 집유조합으로 전국 15개 집유조합을 지정하였다.

집유조합이 지정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라남·북도의 광주전남우유, 전남동부낙협, 지리산낙협과 제주도의 제주낙협에서, 9월 1일부터는 전북의 지리산낙협이 참여하여 9월 현재 1,287농가에서 1일 523톤의 원유를 집유하여 전국 총 원유생산량의

〈표2〉 집유권역 및 권역별 집유조합 현황

권역	집유조합	비고
서울, 인천, 경기	서울우유, 평택축협	'99.6.1일 실시 '99.6.1일 실시
강원	강원낙협, 춘천축협	
충북	청주우유, 음성축협	
전북	지리산낙협, 동진강낙협	
광주, 전남	광주전남우유, 전남동부낙협	
대구, 경북	대구경북우유, 경북중앙낙협	
부산, 경남	부산경남우유, 경남낙협	
제주	제주낙협	
계	15개 조합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금년 집유일원화 참여 목표를 50% 선으로 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금년말에 참여할 경우 6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집유일원화 사업과 병행 실시할 예정이었던 원유의 검사 공영화는 집유일원화 사업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정부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원유검사는 각 도의 가축위생 시험연구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 유업체에서 실시하던 체제가 공영화로 변화됨에 따라 농가들의 검사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낙농자조금제도의 정착

국민 1인당 50kg의 우유 및 유제품을 소비하면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낙농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도입된 낙농자조금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금

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종전까지 낙농가들은 우유만 생산하고 판매는 유업체의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소비까지 신경을 쓴다는 의식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낙농자조금은 국산우유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확대로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낙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8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적립한 낙농자조금은 농가자조금 16억 7천만원, 정부지원금 8억3천만원 등 25억원을 적립하였다.

낙농자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농육우협회 주관으로 금년초에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사업은 광고(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우유소비 홍보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요리강습회, 드라마 프로그램 등 기획사업, 홍보리후렛 및 포스터 제작, 소비

자단체와의 연대 행사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우유를 통한 공익 실현방안으로 제작된 TV CF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이 대한민국 광고대상 TV 공익광고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결식아동이나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ARS 모금 및 은행계좌 입금을 통하여 11월 현재 6천만원 이상의 성금이 적립되었다.

또한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는 우유소비 촉진과 우유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기 위하여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6개 유업체와 한국 유가공협회 후원으로 전국 5대 도시에서 우유 요리강습회를 실시하였다.

5. 체세포 등급별 가격 조정

'98년도에 IMF 사태로 우유 소비가 감소하여 원유가 남아돌게 되어 유량도 적고 체세포가 많이 나오는 노산우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세포 3등급에 대해 kg당 60원씩 1998년 7월 1일부터 감액하였다.

그러나 금년들어 국내 경제상황이 안정되면서 우유소비가 확대되고 원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체세포 3등급에 대해 취해진 60원의 감액 조치를 종전처럼 환원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표 3〉 체세포 등급별 가격조정 내역

등급	체세포수(ml)	가 감 액	
		종전('98.7.1일 시행)	조정('99.10.1일 시행)
1급	20만 미만	+ 30원	+ 30원
2급	20만~50만 이하	0	0
3급	50만 초과	- 60원	- 30원

이에 정부는 낙농가들의 정서를 받아 들여 1999년 10월1일부터 체세포 3등급에 대한 감액금액을 종전 60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하였다. 체세포수의 등급별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그간 3등급을 받아온 농가가 35% 정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농가 입장에서는 원유대의 1.85% 증가 효과가 있다.

금번 조치는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큰 의미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낙농가들은 원유의 위생등급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6.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1999년 2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분뇨처리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농가는 미처분 가축분뇨를 공공유역에 무단 방류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신고미만 대상을 삭제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축종별 하루 분뇨와 오수 배출원 단위의 변화는 낙농가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한우나 돼지의 경우는 배출원 단위가 감소하였으나 젓소의 경우 하루 35l에서 45.6l로 증가하였다. 배출원단위의 증가와 함께 액비살포면적이 감소되어 분뇨를 액비로 처리하는 낙농가는 이중부담을 안게되었다.

또한 「한강수계법」의 신설로 수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서는 사실상 낙농 등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변 구역내 목장의 이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수변구역의 범위는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유역으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변으로부터 거리 1km 이내인 지역이며, 특별대책외의 지역은 강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분뇨 무배출을 전제로 낙농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시설부담과 운영비 부담 등 경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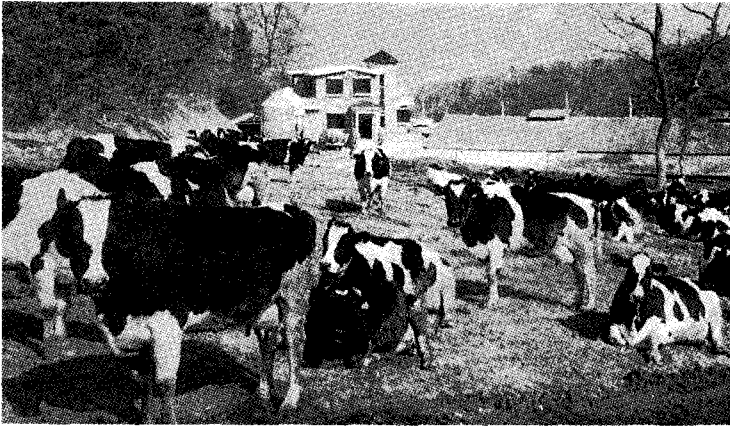
현재 많은 낙농가에 보급된 톱밥발효우사의 경우 적정 규모의 퇴비사를 설치하는 경우 분뇨처리시설로 인정되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세척수나 청소수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운동장이나 사료급여시설내에서는 분뇨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이나 분뇨유출 방지턱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지정되었지만 이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가 쉽지 않아 목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7. 조사료부족

만성적인 조사료 부족은 금년에도 계속되었다. 10월말 현재 수입쿼터량 150,000톤을 거의 소진한 상황에서 국내 조사료 수급사정도 호우와 태풍피해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벼 수확시기와 건조시기에 계속된 일기불순으로 볏짚생산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거된 볏짚도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예년에 비해 질이 떨어져 조사료 부족 문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00년 종자신청량이 금년에 비해 30% 정도 감소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급사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감소하고 수입조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쿼터량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여 2000년도에도 조사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팔파와 같은 고급 조사료 수출국인 미국이나 캐나다의 기후가 좋지 않아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도 감소하여 수입 조사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8. 집중호우 피해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경기 북부지역 1만7천977ha가 침수되고, 젓소 377마리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해 옥수수포 등 사료작물포와 논이 침수되고 강한 바람으로 많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쓰러져 금년도 조사료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9. 유제품 전품목 HACCP 제도의 정착

1997년부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HACCP제도가 낙농관련 사업부문에서도 정착되어가는 추세이다.

금년 8월초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유제품 전품목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남양유업, 11월에는 매일유업이 각각 HACCP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HACCP은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과 품질인증을 위해 위해요인을 설정하고 중점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단계별로 분석한 세부 위해요소(HA)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 위한 중점관리 점검항목(CCP)을 설정한 후 단계별로 종사자가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각 중점관리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유제품 전 품목에 대한 HACCP인증 확대는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 유제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줌으로서 유제품 시장의 확대는 물론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낙농산업의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

10. 유제품시장의 변화

금년 유제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PB(자사브랜드 : Private Brand) 상품과 가정배달 전용우유의 등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PB상품은 매일유업에서 납품받는 LG유통의 "함박웃음 우유", 삼양식품에서 생산하는 E-마트의 "E-PLUS", 축협에서 생산하는 농협of "하나로 우유" 등이 있으며 대형 할인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PB우유는 브랜드만 다를뿐 제조원과 내용물, 품질 등은 똑같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유가공 3사가 가정배달 전용우유 시장에 본격 참여하고 있다. 가정배달 우유시장은 IMF사태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최근 전용우유를 주문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배달 전용우유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나 성분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배달우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필자연락처 : 02-433-8151)